데스크시각

정 기 태

단체장의 강박관념

민선단체장 출범 10년이 넘었어도, 옛날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일부 '초짜'들의 어설픈 행태(行態)며 돌출발언은 오늘도 계속된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쓴 '민선단체장 성장일지'란 글의 제목은 이렇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상과 현실 갈등 갖가지 해프닝'. 당시 글의 한 대목은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갈등과 혼선 초래

〈김 모 북구청장은 취임 후 지난 89년 맺었던 대구 달서구청과의 연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북구청이 보낸 공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매의 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자매의 관계를 해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 '시대의 변화'는 알고 보니 자신과 같이 재야출신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이재용 청장의 대구 남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신문은 이를 두고 '…무조건 관선시대의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독선과 오만(?)에 가득한 발상(광주일보 95년 9월15일자)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 북구청은 달서구청과 다시 자매결연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뒷맛이 씁쓸하기는 양 구청 다 마찬가지였다.…〉

놀랍게도, 광주 북구에서 벌어졌던 이 해프닝은 올 들어 똑같이 재탕(再湯) 됐다. '전라도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이효선 광명시장이 지난 14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온 영암군 측에 결연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시장은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그동안 교류 실적이 별로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와 결연해야 하니 자매결연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전화 통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물의를 빚자 그는 "행정절차를 잘 몰라 벌어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결코 호남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변명도 뒤따랐다.

안양공고 출신인 이 시장은 현대그룹 노조협의회 의장직대를 지낸 사람이다. 한나라당 광명지구당 부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쳤다. 이력으로 보면,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다만, 그런 인물이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에 당선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따름이다.

이렇듯, 새 단체장 취임 때마다 논란이 됐던 '연례행사'는 여전히 답습(踏襲) 되고 있다. 22개 시·군 중 12곳의 수장(首長)이 교체된 전남의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발표와 기존 정책 포기가 줄을 잇고 있다. 어떤 곳에선 조직 내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생태도시'를 지향해온 담양군은 최근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원을 줄이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생태도시'는 이제 '물건너간' 것 같다.

순천시는 조례저수지 인근 5만5천 평의 부지에 오는 2010년까지 249억 원을 들여 도심 속 호수공원을 만들기로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어린이 교통공원·뿌리깊은 나무박물관·시민천문대 등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던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구례군도 야생화 특구 조성과 세계야생화엑스포 개최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고흥군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시적 성과 급급 말아야

물론 전임자가 추진한 정책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정 여건과 투자 효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도 새로 들어온 이의 몫이다. 하지만 차별화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임기 내 가시적인 모습을 거두려는 과욕(過慾)은 돈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정책과 사업이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조직의 평형감각이 떨어지고 엄정한 인사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인사권자 눈치보기에 급급하면 모든 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성과주의(成果主義)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단체장에게 살림을 맡긴 지역민들은 민선 4기 내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사설

정부 '광주문화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상임위 및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박광태 시장은 이례적으로 환영성명까지 발표했다.

특별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특별법 통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법적 기틀 아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에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도 법적 기구로 승격하게 된다.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어 지역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침체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특별법 통과는 문화수도 준비작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대통령 취임 후 '광주문화수도'로 현실화 됐다. 문화수도가 완공되면 광주는 문화의 전당을 비롯 각종 문화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능일 수는 없다. 광주문화수도는 2023년까지 계속되는 장기적 국책사업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정국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견제와 시기를 해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문화수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도 아직은 불충분하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광주문화수도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박공화국' 총리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

한명숙 국무총리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29일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심려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야당은 사과 방식부터 문제 삼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을 빌려 사과한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번 파문을 참여정부 최대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도박공화국'으로 번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나라를 온통 도박판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게 한 뒤 총리의 사과 정도로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성인용 오락실 등을 '게임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까지 푸는 등 갖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 도박을 권장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을 게임산업진흥법 등으로 보호하고 상품권 발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행성 심사와 상품권업체 지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등 민간기구에 내맡긴 것도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한 총리의 사과는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과 로비 등을 총체적으로 밝혀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권 실세나 정치권의 개입, 점은 돈의 배후 등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민심을 '분노의 바다'에 빠드린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 병 인

남북문제, 미래적 관점서 풀자

우리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북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꼬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당혹함과 긴박함이 있다.

지난 7월초 북측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그나마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던 남북교류의 장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닫힌 상태다.

오리무중속에 숨이 턱 막혀온다. 역풍이 너무 심해 실눈 뜨고서도 앞을 보기 어렵다. 남북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럴때일 수록 우리 민족의 앞길을 전망하는데 냉철해야 한다. 어느 순간 잠시 판이 흔들린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면 결국 그 댓가는 온전히 우리들 몫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앞길을 전망하고 설계하는데 가장 중심에 놓을 화두는 '미래적 관점'이다.

극단적인 냉전과 대립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이 치룬 유무형의 비용은 엄청났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최근 6년간 남북은 5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여러 '전향적 사건'을 일시에 터뜨려왔다. 이것이야 말로 향후 남북이 무슨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북핵문제는 94년 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일괄타결 방안 합의를 거쳐 현재의 6자회담 등 여러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때론 합의돼왔다. 그러나 따져보면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표류하게 된 것은 북측의 태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책임 역시 지대하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중적인 대외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핵문제를 보더라도 미국은 인도의 핵은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협력 관계까지 맺고 있다. 하지만 북측에게는 무조건 포기부터 하고 뒤에 얘기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순리다. 특히 남측의 태도변화가 급선무다. 물론 북측의 최종 목표는 북미간 직접 담판을 통한 협상타결이기에 남측과의 관계는 우선 순위에서 제쳐놓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는 엄연히 남북 당사자인 만큼 북측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악수를 두지 않게끔 유도하는 책무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중국과 러시아는 현상태 유지를 바란다. 모두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남북을 장기판의 말 삼아 벌이는 수 놀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우리는 북측에 해오던 지원과 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당국간 신뢰를 쌓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는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강정보대학 교수·2006년 4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폭력성있는 TV 프로그램 개선돼야

얼마전 남편과 드라마를 보면서 교통사고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지를뻔 했다.

한 소녀가 걸어가다 자동차에 치이는 장면인데, 너무나 사실적이었다. 남편도 놀랐다. 다섯살난 아이도 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나온 장면이었다.

요즘 어느 집이나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밤 시간대 방영된 지상파 프로그램도 낮에 재방송으로 볼 수 있다.

TV의 폭력성이나 선정성 논란은 개선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저녁이나 밤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재방송되면서 아이들까지 선정적 장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독자마당

혼혈아에게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목포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이모가 얼마전 잠시 귀국, 가족들을 만났는데 낯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혼혈인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어렸을때 옹알이를 "맘마""빠빠" 하는 게 아니라 "어천아배" "어천아배."라고 한다는 것이다.

어천아배라는 말은 '(어)머니 나라에서는 나를 (천)대하고, (아)버지 나라에서는 나를 (배)척하네"라는 뜻이라고 한다.

가슴 한켠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혼혈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말이다. 얼마나 설움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빗대 농담으로 했을까.

미국인 병사와 결혼한 이모는 한국에서는 혼혈인 아기를 기를 자신이 없어 미국으로 갔고 두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웠다며 옛날 생각을 더듬었다.

이모는 그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웠다면 그만큼 자라게 할수 없었을거라고 말했다.

미국 프로풋볼 선수인 하인스 워드가 왔을때 혼혈아에 대한 반짝 관심을 보인 뒤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장애우를 위한 극장 편의시설 배려를

얼마전 남편과 함께 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갔는데, 청각장애인으로 보이는 2명이 손동작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영화 화면을 제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장애우들의 경우 극장 안에 장애우 전용 좌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극장까지 가기도 힘들다.

그나마 극장에 도착한 뒤에도 청각장애우들은 영화에 자막이 없으면 화면만 볼 수밖에 없다.

외국 영화처럼 한국영화도 자막을 넣어줬으면 한다.

장애우들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은 우리 영화도 맘 놓고 볼 수가 없는 형편아닌가.

한국 영화에 자막을 추가한다고 해서 제작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극장 안에 점자안내표시 등 편의시설도 보강해야 한다.

작은 배려가 장애우들에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미영·광주시 동구 금동

주례없는 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계기 됐으면

지난 주말 시내에서 열린 친척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례를 서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주례사를 얼마나 지루하게 할까하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신랑·신부는 입장을 한 뒤 하객들 앞에서 간단한 맞 절을 하고 서로 마주보며 혼인서약을 했다.

이어지는 환영인사와 친구의 축사, 양측 아버지의 당부 말 등으로 결혼식은 진행됐다.

많은 하객들이 주인공인 신랑·신부가 하객과 대화하듯 진행하는 결혼식에 재미있어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는 듯 했다.

예식장 관계자는 최근 주례 없는 결혼식에 대한 문의도 많고 이를 선호하는 예비부부도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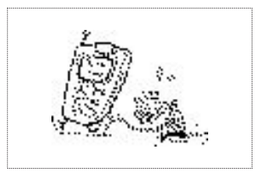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검소하고 소박한 혼례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준선·광주시 북구 삼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휴대전화 중독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화면을 봐야 하고, 문자메시지를 습관적으로 보내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휴대전화 중독 증세다. 그래서 부모들은 한참 꿈을 키워가야 할 젊은 시절에 휴대전화의 노예가 되다시피 한 자식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태국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전통문화 가치를 급속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가문화위원회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병폐를 관찰한 뒤 이의 절제가 필요함을 6가지로 요약해내 눈길을 끈다.

우선 청소년들이 최신형만 찾으면서 휴대전화 유행의 희생물이 되고, 결국 빚쟁이로까지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다. 또 즉시 연결 습관이 조바심으로 발전돼 다른 일상에서도 짜증을 자주 내게 되고 회의 때의 벨소리 등 사회적 에티켓도 해친다. 여기에 부모와 대화보다는 또래들과 통화를 즐겨 가족 유대에 악영향을 주고, 대화의 진지함이 부족해진다. 위원회는 이외에 전자파로 인한 청력 이상, 두통 유발은 물론 정신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정통부가 나서 청소년 대상 휴대전화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4명이 수업중 몰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1명당 한달에 1천건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하루 최고 40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의 대부분은 '심심해서'였다. 또 3명중 1명꼴로 휴대전화가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전화화면을 볼 정도로 중독상태가 심각했다.

이쯤되면 휴대전화 중독을 넘어 '휴대전화의 노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급사들은 판매를 늘리고 통화량 증대를 위해 온갖 상술만 부릴 뿐 이런 폐단에는 아랑곳 않고 있다. 휴대전화의 유익한 사용을 위해선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업계의 각성이 더 중요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